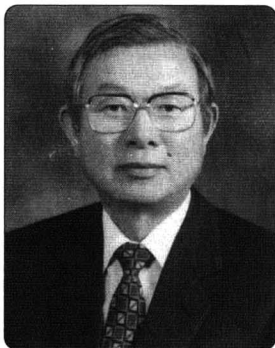


밀레니엄의 언덕에서 산업보건을 생각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조 규 상



무궁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길어야 백년을 살다 간다. 천년의 연대가 바뀌는 언덕 위에서 지나간 천년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이다.

인류의 문명은 노동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삶을 영위하며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에는 많은 인명의 희생이 수반되었다.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복지에 크나큰 공헌을 가져왔으나 공장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은 국민보건에 혹독한 희생을 수반하였다. 이리하여 노동법이 제정되었고 산재보상보험법이 창시되었으며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공산주의도 한세대를 풍미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현대의학의 체계가 세워짐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규명되기 시작하였고 예방의학도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방의학에 기초를 둔 산업위생공학의 공헌으로 직업병예방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2차대전을 전후하여 공장들은 기계의 자동화시대로 들어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은 감소되었으나 기계에 휘말려 인간소외현상을 빚어내어 인간공학의 분야가 대두된다. 그러던중 과학은 전자공학의 시대를 연다. 로켓을 이용하여 꿈에 그렸던 달나라 여행이 실행되며 모든 측정기구들은 극도로 정밀하게 된다. 산업장에서는 로봇이 출현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시대가 열린다.

중세기말까지 전염병의 창궐과 식량의 결

땀은 인구증가에 있어 자연제동을 걸어왔다. 현대의학이후 예방대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문제는 점차로 해소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인구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인구증가는 둔화되었으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염병 대신에 성인병관리가 중요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질병예방에서 보다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증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사상은 옛부터 천시되어 왔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도 시혜적인 것이었다. 노동법제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는데 경제개발 속에서는 노동을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건강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보다 즐겁고 쾌적한 환경조건 속에서 인간답게 일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새 밀레니엄의 문턱에 서서 미래를 어떻게 내다 볼 것인가?

오늘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 속에서 급속도로 변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천년은 고사하고 백년도 어렵하기 어렵다.

단지 현황에 비추어 말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미래는 남녀의 차별 없이 누구나 노동과 건강의 기본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2. 앞으로는 전염병과 직업병은 옛 산물이 되어 버리고 성인병관리도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반면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의 노동과 노인건강관리가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산업은 정보화산업 속에서 노동은 감시작업이 주가 되는 두뇌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체력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운동이 적극화될 것이다.

4. 모든 산업은 세계화 속에서 국경 없이 규제되고 산업은 국제화 속에서 근로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5.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과제는 환경오염이다. 이것은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존재로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오고 있다. 또한 유전공학의 발전은 인류복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도 무서운 복병으로 존재할 것이다.

구미 각국에서도 21세기를 앞두고 산업보건의 연구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과거의 과제들도 많고, 변화하는 산업기술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도 제시되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사회는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여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리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는……. 